

정책연구자료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

2005. 2

한기정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머리말

2003년 3월 정부는 금융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금융법체제 개편안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그간 금융겸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감독할 법규가 분업주의의 법체계하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에 대해 금융산업마다 금융법 체제개편이 각 업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통합금융업법 제정 과정에서 보험업의 특수성이 간과된 채 다른 금융업과 획일적으로 규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보험업이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분석하여 통합금융업법 제정시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2001년부터 금융통합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우리나라의 행위규제를 개관하고, 영업규범 (code of Business)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통합금융업법 제정시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9월부터 1년간 우리 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이화여자대학교의 한기정 교수가 수행하였다. 보고서 출판에 즈음하여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신 한기정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의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 내·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5년 2월
원장 김 창 수

< 요약문 >

1. 연구배경

□ 영국 통합금융업법의 탄생

- 영국은 기존에 존재하던 금융업종별 금융감독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한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을 1998년에 출범시켰고, 각종 금융업법들을 통합하여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이하 'FSMA2000')을 2000년에 제정하고 2001년부터 시행함.
- o 통합금융업법을 제정한 이유로는 금융업의 겸업주의 수용, 자율규제의 한계 극복, 금융기관별 규제의 비효율 및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기능별 규제의 도입, 금융범죄에 대한 대처 등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거래에 관한 영업규범은 금융업종, 금융기관별로 존재함. 그 결과, 동일한 기능의 금융거래라도 금융업종, 금융기관이 다르면 적용되는 영업규범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행위규제의 法源도 일정하지 않음. 요컨대, 규제의 비효율, 불균형 현상이 발생함.

□ 우리나라의 통합금융업법 추진과 행위규제

- 우리나라도 영국 FSMA2000의 영향을 받아서 재정경제부와 금융발전심의회가 주도로 2003년부터 통합금융업법 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음.
- 한국개발연구원은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겸업주의의 즉각적 도입보

다는 전업주의를 향후 일정기간 유지할 것을 제안하는 잠정보고서를 발표하였음. 또한, 금융연구원도 건전성의 면에서 금융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합의 수준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잠정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통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평가될 뿐만 아니라, 통합에 대한 업계, 전문가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여겨지는 영역이 금융업자의 행위규제 부분임. 금융업자의 행위를 기능별로 통합하여 규제하면 규제의 효율과 형평을 기할 수 있고 그 결과 금융고객을 보호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음.

□ 행위규제에서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 본 연구의 목적은 FSMA2000의 행위규제에서 보험업이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데 있음.
- 보험업계에서는 통합금융업법의 제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즉, 보험업이 통합금융업법 제정 과정에서 그 특수성이 무시된 채 다른 금융업과 획일적으로 취급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통합금융업법의 모델로서 검토되고 있는 FSMA2000이 행위규제 면에서 보험업을 다른 금융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측면(보험업의 일반성)과 다르게 취급하는 측면(보험업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통합금융업법의 제정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을 것임.

2. 분석 대상

□ 적용범위에 대한 일반규정

- FSMA2000 하의 행위규제를 법제화 한 영업규범으로는 일반 금융

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영업규범(COB)과 비투자보험업자에게 적용되는 비투자보험영업규범(ICOB)이 있음.

모든 인가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 정보전달의 방식, 유인 및 선입, 타인에 대한 신뢰, 정보접근의 제한, 책임의 배제

금융광고

소비자를 받아 들이기

- 고객의 분류, 영업조건

권유와 판매

- 법적 지위의 고지의무,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의무, 적합성, 위험에 대한 이해, 인가업자에 대한 정보, 과도한 수수료, 수수료 등의 고지, 요청되지 않은 역무

상품고지 등

- 상품고지, 예상수익율, 해제 및 철회, 보험계약의 정보제공, 배당부 보험계약의 정보제공

거래 및 관리

- 이익상충, 과당거래 및 승환의 금지, 선행거래, 고객주문 순서, 최선의 집행, 적기의 집행, 병합 및 분배, 일반 소비자의 자산의 집행, 일반소비자에 대한 대여, 증거금 요건, 장외거래증권, 소비자 주문과 집행기록, 개인계정 거래, 프로그램거래, 비시장가격에 의한 거래

□ 거래 확인에 대한 소비자의 통지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처리

□ 영업규범의 위반시 처벌

3. 결론

□ 영국의 영업규범은 행위규제에 대한 통합이 가능함을 입증하고 있음.

- 영국의 영업규범은 행위규제 관련 항목별로 대부분을 통합하였음.
- 다만, COB중 고객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운전자, 수탁자 및 수탁행위, 로이즈 등 통합이 적절하지 않은 특수 영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

□ 영국의 영업규범은 규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음

- 동일한 기능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금융기관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행위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임.

□ 영국의 영업규범은 개별 금융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음

- 동일한 기능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개별 금융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생명보험은 지위이분법이 적용되는 일괄상품(packaged product)에 속하기 때문에 여타 투자상품과는 구분됨.
- 투자생명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규정들이 있음. 주요한 것으로는, 실시간 금융광고가 가능하다는 점, 영업조건 제공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비투자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수의 별도의 규정들이 있음.
 - o 실시간 금융광고가 가능하다는 점, 고객을 소매소비자와 기업소비자로 분류한다는 점, 고객에게 위험에 대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 수수료의 고지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는 점,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격지자간 보험매매가 제한된다는 점, 예상수익을 제공에 관한 규제가 없다는 점.
 - o 거래와 관리에 관련된 규정들(이익상충, 과당거래 및 승환의 금지, 선행거래, 고객주문 순서, 최선의 집행, 적기의 집행, 병합 및 분배, 일반 소비자의 자신의 집행, 일반소비자에 대한 대여, 증거금 요건, 장외거래증권, 소비자 주문과 집행기록, 개인계정 거래, 프로그램 거래, 비시장가격에 의한 거래)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 o 보험금청구에 대한 처리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향후 금융관련 영업규범을 통합할 때 취할 바람직한 방향과 전략

- 영업규범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의 형식으로 존재하도록 해야 함. 다만, 영업규범 중 기술적이고 시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이하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용 면에서 보면, 현행 우리의 영업규범을 통합하는 방법이 있고, 영국의 영업규범을 수용하여 통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o 초기단계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o 그 이유는, 영국의 영업규범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업계의 부담감 또는 거부감으로 때문에 현행 우리나라의 영업규범의 통합마저도 곤란해진다면 규제의 형평과 효율이라는 통합의 제1차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임. 내용 면에서 영국의 영업규범을 수용하는 문제는 다음 단계에서 다룰 사안임.

- 기존의 영업규범을 통합함에 있어서 금융업종별 특성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만약 그렇지 않다면 행위규제의 획일화라는 폐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 영국의 영업규범은 금융업종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매우 성공적 모델이라고 평가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3
가.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나. 연구의 방법	4
II. 영업규범의 개관	5
1. 영국	5
가. 법적 근거	5
나. 영업원칙	5
다. 영업규범	8
2. 우리나라	19
III. 영업규범의 내용 및 분석	21
1. 적용범위에 대한 일반규정	21
가. COB	21
나. ICOB	23
2. 모든 인가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25
가. 정보전달의 방식	25
나. 유인 및 선입	29
다. 타인에 대한 신뢰	36

라. 정보접근의 제한	38
마. 책임의 배제	40
3. 금융광고	44
가. 영국	44
나. 우리나라	56
4. 소비자를 받아들이기	58
가. 고객의 분류	58
나. 영업조건	65
5. 권유와 판매	69
가. 법적 지위의 고지의무	69
나.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의무	77
다. 적합성	81
라. 위험에 대한 이해	87
마. 인가업자에 대한 정보	92
바. 과도한 수수료	95
사. 수수료 등의 고지	97
아. 요청되지 않은 역무	103
6. 상품고지 등	104
가. 상품고지	104
나. 예상수익률	115
다. 해제 및 철회	117
라. 보험계약의 정보제공	122
마. 배당부보험계약의 정보제공	125
7. 거래 및 관리	126
가. 이익상충	126

나. 과당거래 및 승환의 금지	129
다. 선행거래	132
라. 고객주문 순서	134
마. 최선의 집행	136
바. 적기의 집행	138
사. 병합 및 분배	141
아. 일반 소비자의 자산의 집행	144
자. 일반 소비자에 대한 대여	146
차. 증거금 요건	148
카. 장외거래증권	151
타. 소비자 주문과 집행기록	153
파. 개인계정 거래	155
하. 프로그램거래	157
거. 非시장가격에 의한 거래	158
8. 거래확인에 대한 소비자의 통지	160
가. 영국	160
나. 우리나라	161
9. 보험금 청구에 대한 처리	161
가. 영국	161
나. 우리나라	164
10. 영업규범의 위반시 처벌	164
가. 영국	164
나. 우리나라	165
IV. 결론	168
참고문헌	171